



# ISU

2018 WINTER VOL. 91

INSIDE

Young ISU

24기 신입사원, 우리는 슈퍼 그웨잇 루키

Show me the 팀웍

이수화학 안전경영팀

OUT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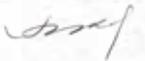
스페셜 리포트

고효의 마음을 훔친 연필에서 혁신을 보다

몸도 마음도 힐링

해 뜨는 바닷가에서 부르는

무술년 희망의 노래



# Contents

# 01

## Coverstory



### 표지 모델

왼쪽부터 손정배 차장, 김지영 대리, 김성엽 차장, 오준 부장, 김민우 차장, 최현우 대리, 김홍규 차장

표지 작가\_ 변영재

신년호 'Show me the 팀웍'에 출연한 이수화학 안전 경영팀. 최고의 성과로 최고의 2018년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느껴진다.

추운 날씨에도 동료들에게 희망찬 기운을 보내고 싶다는 지친 기색 없이 열성을 다해준 그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 05

## INSIDE

### 06 Focus & News

### 22 Young ISU

24기 신입사원, 우리는 슈퍼 그웨잇 루키

### 22 이슈를 잡아라

이수화학 봉사단의 집수리 현장

### 24 Show me the 팀웍

이수화학 안전경영팀

### 28 Photo essay

사진으로 말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강아름\_ 이수페타시스 영업1팀 사원

김주연\_ 이수엠피스 공정개발팀 사원

### 30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역사학자 정기문의 식사〉

# 33

## OUTSIDE

### 34 스페셜 리포트

고흐의 마음을 훔친 연필에서 혁신을 보다

### 40 이수미식회

이수화학 이정구 사보기자 추천 맛집

'양촌흑미전복삼계탕'

### 44 몸도 마음도 힐링

해 뜨는 바닷가에서 부르는 무술년 희망의 노래

### 50 직장생활백서

업무 효율 높이는 책상 정리의 기술

### 54 아이러브 Culture

소리로 먹고, 소리로 소비하라

소닉브랜딩

### 57 Ombudsman

### 58 퀴즈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18년 신년호 통권 91호

발행일 2018년 1월 16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895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정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김다혜)

이수건설(이진우)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정유숙)

이수엠피스(박예스더) 이수엑스캠(박수영)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홍주희, 디자이너 민수기

인쇄 삼우아트(주)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수가족 여러분!

2017년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이수가족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2018년은 최악의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과 강력한 통상압박, 금리 등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동일한 제품군 및 제한된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기업이 우리의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치밀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변화는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에 따른 준비는 무엇인지, 대응 시기나 방법에 대해 느슨함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혁신'입니다.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혁신 없이는 생존도 없습니다. 혁신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 부문에 걸쳐 기존 업무의 관행을 타파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품질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혁신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영한파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개발만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하여 우리 그룹의 핵심가치인 성실, 도전, 고객만족을 차원 높게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으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익숙한 업무에서 숙련도에 의지하여 매뉴얼 준수를 게을리 했을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가 실험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면 실패를 무릅쓰고 실천 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그룹을 성장 시킬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한발 앞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적극적인 고객만족을 실천하십시오. 선제적 고객만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실, 도전, 고객만족.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자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우리의 핵심가치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를 돌파하고 기회를 만들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이수건설 하남미사2 LH 현장을 찾은 김상범 회장



이수엑사보드 안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상범 회장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현장 전경

## 혁신의 시작 현장경영이 답이다

### 김상범 회장 이수건설, 하남미사2 LH 현장 방문

김상범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하남미사2 LH' 현장 방문에 나섰다. 실무진으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은 김상범 회장은 현장 및 견본세대를 세세히 살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무사고 기원을 당부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하남미사2 LH(공사명: 하남미사 A14BL 아파트건설공사 20공구)는 2018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면적 34,932평 규모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5층의 총 7개동 1,632가구를 신축하는 공사이다.

### 이수엑사보드, 신규 mSAP(Modified Semi-Additive Process) 라인 살펴

김상범 회장은 지난 11월 2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이수엑사보드를 찾았다. 실무진들과 함께 신규 mSAP 라인을 둘러보며 셋업 경과 및 설비의 특징점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상범 회장은 공정을 최적화해 목표한 수율을 달성해 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 美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

김상범 회장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참관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글로벌 기술 동향을 살필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신년 키워드로 '혁신'을 내세운 김상범 회장이 다양한 혁신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한 자리였다.

## (주)이수



### 이수그룹 공채 24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진행

이수그룹은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교원비전센터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가졌다. 2018년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 53명은 PT실습,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신입사원과 현업 선배를 매칭해 신입사원을 멘토링 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직 내 신입사원들의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수화학



### 증권계 공장투어 실시

이수화학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증권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온산공장 및 울산공장 투어를 가졌다. 공정 설명과 라인 투어로 구성된 일정은 증권계 투자자의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증권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공장투어는 2017년 한 해 동안 다섯 번 시행되었다.

## 이수화학

### 소외계층 주거개선 봉사활동 실시

이수화학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 간 지역 내 소외계층 중 총 9가구를 선정해 노후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손발이 시린 추운 날씨였지만 참가한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했다.

이수화학은 연말 봉사활동 외에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 이수페타시스

###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이수페타시스 나눔봉사단의 임직원과 가족들은 지난 12월 9일 연탄 나눔 봉사를 가졌다. 대구 달성종합복지회관과 협업해 진행된 이번 봉사는 논공 인근 옥포, 유가 지역 등의 독거노인 4세대를 방문해 연탄 총 1,200장을 지원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독거노인은 "연탄과 함께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추운 겨울을 잘 보낼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이수건설

### 각 분야 수주 및 분양 이어져

이수건설은 지난 12월 26일,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해당 공사는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1층 총 9개동 770가구가 들어서는 공사이다. 한편, 각 분야의 수주도 이어졌다.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해울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를, 12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연구협력관 신축공사를 각각 수주했다.



## 이수시스템

### 패스볼트 유통 파트너 사업 설명회 개최

이수시스템은 지난 12월 이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볼트 파트너 리크루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패스볼트는 보안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 에스엠에스의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지난 11월 총판계약한 후 활발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이수시스템은 이번 파트너 리크루팅을 통해 패스볼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솔루션 유통사업 부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이수창업투자

### 〈염력〉 〈흥부〉 〈바람바람바람〉 등 상영작품 소개

이수창업투자는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웹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와 뮤지컬 〈터닝메카드 R〉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1~3월에는 영화 〈염력〉 〈흥부〉 〈바람바람바람〉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영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수엑사캠

###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이수엑사캠 임직원들은 지난 12월 8일 개미마을에 연탄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개미마을에는 연탄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3개의 창고가 있는데, 이곳에 각각 500장씩 총 1,500장을 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이수엑사캠은 앞으로도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이수앱지스

### 아이큐비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수앱지스는 지난 12월 14일 판교 본사에서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 아이큐비아(IQVIA)와 자사의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빙 치료제 '파바갈'의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수앱지스는 이번 아이큐비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2017년 송년회 가져

이수앱지스는 지난 12월 18일 판교에 위치한 '더 퍼스트 클래스'에서 136명의 전 직원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행사는 이석주 대표이사의 올해 경영성과 및 내년도 경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수앱지스 동아리 소개 및 2017년 신규입사자 자기소개 영상 상영, 승진자 발표로 진행됐다.



## 2018 신입사원

## 24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슈퍼 그레이트 루키  
ISU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2018년 53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ISU 가족이 되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주간의 입문교육을 마친 슈퍼 그레이트 루키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고 두근거릴 후배들의 모습을 사보를 통해 먼저 만나본다.



### “초심으로 최고를 향해”

업무는 매끈하게, 소통은 따끈하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끈끈’한 (주)이수  
24기 신입사원입니다. 업무에 임하는  
초심과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  
며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이수인이 되  
겠습니다.



### “나는 이순신의 후손이요”

이수건설의 일당백이 될 2018년 신입사원입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전세를 뒤집어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  
처럼 저희도 건설시장의 중심을 ‘이수건설’로 바꿔놓겠  
습니다. 저희의 각오를 4행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런 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아직도 앞에 남아있습니다.  
**건:** 강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해결책들을  
**설:** 계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도전! 도전! 도전!”

‘Chem is try’, 화학은 도전이다!  
저희는 도전 정신으로 뚝뚝 뚫친 이수화학 24기 신입사원들입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저희 12명은 열정과 패기로 2배의 능력을 발휘해 12x2=24기에 어울리는 24인분의 파  
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수페타시스

### “상상 이상의 시너지”

사람은 얼굴 근육 17개를 사용하여 700여 가지의 다양한 웃음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개 각각의 근육이 아니라, 서로의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페타시스 24기 17명도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화합하고 협동해 700여 가지 이상의 시너지를 내보이겠습니다.



### “무적의 파워레인저”

이수시스템의 파워레인저가 될 2018 신입사원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파워레인저답게 찾아내고, 싸우고, 승리하겠습니다.

**찾는다:** 우리와 고객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발 앞서 찾겠습니다!

**싸운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는 도전으로 우리의 한계를 싸웁니다!

**승리한다:** 이뤄낸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갈구합니다!



## 이수시스템

## 이수앱지스

### “World Best 바이오 의약회사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이수앱지스 신입사원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신약을 개발해 전 세계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World Best 바이오 의약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이수앱지스 파이팅!



## 이수엑사캠

### “우리는 최강 콤비”

저희는 이수엑사캠의 특수요원이 되고 싶은 고영빈, 서태석입니다.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고 외계인을 관리하는 비밀조직 MIB처럼 저희는 최종소비자에게 노출되진 않지만, 정밀화학 분야의 special agent로서 다양한 제조업 산업의 기반을 책임지겠습니다. 최강의 콤비 고영빈, 서태석을 지켜봐주시시오!



## 이수엑사보드

### “무한에너지가 되고 싶어요”

이수엑사보드의 무한에너지가 되고 싶은 24기 신입사원 인사드립니다. 저희 8명은 엑사보드의 핵심이 되어 투철한 사명감을 장착하고 88(팔팔)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무한 에너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Dear. 이수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53명의 신입사원들이 이수가족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들은, 치열한 취업난을 뚫고 선발된 유능한 인재이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건강한 묘목과도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이번 입문과정을 통해 이수그룹의 가치와 문화, 경영 현황에 대한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혔고, 그 외 다양한 조직적응 프로그램들을 놀랄 만큼 우수하게 이수했습니다. 선배님들은 신입사원들을 만나시면, 이수라는 기름진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려주시고, 더불어 신입사원들이 그 땅에 깊고 튼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은 후배들을 반가움으로 맞이해주시고,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적응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이수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From. 박지훈 과장 (㈜이수 HR팀)





## 소외계층 돌보는 따뜻한 손길 이수화학 봉사단의 집수리 현장

이수화학 봉사단체 '이수봉사단'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특별 행사로, 8일 간 70여 명의 이수봉사단원들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적극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더해가는 이수화학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 동안 특별한 봉사활동을 가졌다.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 취약 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었다. 70여 명의 이수화학 봉사단원이 손과 마음을 보

탠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수리 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리 가구는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전문시설부터 필리핀 기초수급자 가정, 도움이 필요한 일반

가정까지 총 9곳이었다. 봉사 당일에는 싱크대 철거, 페인트 칠,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 수리, 집기류 정돈, 화단 정리 등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코끝이 시리는 매서운 날씨였지만 이수봉사단의 세심한 배려와 손길은 금세 봉사 현장을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수그룹의 CSR 활동은 각 계열사의 사업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수화학은 2009년부터 '이수봉사단'을 설립해 울산 지역의 8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드리는 급식 봉사부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지역탐방 프로그램까지 그 내용과 방법도 참신하고 알차다. 또,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만큼 회사도 같은 금액

을 출연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후원과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 이수화학의 CSR 활동. 그 활동에 열기와 진심을 지켜내고 있는 '이수봉사단'. 그들의 좋은 생각과 좋은 활동들이 점점 커져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모습은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빛내고 있다.



이수화학 안전경영팀

# 우리는 이수화학 파수꾼 365일 안전제일 무사고를 사수하라!



울산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는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제품과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화학 회사로, 중국, 독일에도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고분자 제품 첨가제, 특수기능용제, IPA를 자체 개발하는 높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신년 호에 만난 안전경영팀은 이수화학의 안전과 원활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다.

뒷줄 왼쪽부터 김민우 차장, 김지영 대리, 최현우 대리, 김성엽 차장, 오준 부장, 손정배 차장, 김홍규 차장



### Q.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이벤트, 모니터링, 분석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캠페인, 안전골든벨, 소방 기술경영대회 등 안전과 관련된 이벤트와 행사를 주관하고 태풍, 지진, 전염성 질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한 대응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GOC와 동명이수에 대해 안전문화 진단과 GOC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안전문화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ISO9001/14001, OHSAS18001 등 품질 유지 관리 업무도 저희 몫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ISO9001/14001의 2015년판 전환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사업의 법규 검토와 신규 법규 대응 업무 등 이수화학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팀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안전 담당의 김민우 차장과 김홍규 차장, 품질경영과 ImTpm 업무를 보는 김성엽 과장, 환경 담당의 손정배 과장, 교육과 보건을 책임지는 김지영 대리, 안전환경을 도맡고 있는 최현우 대리, 그리고 팀장을 맡고 있는 저, 오준 부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 팀은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뛰어난 역량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분야의 이슈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팀웍을 발휘하는 모습은 엄지를 치켜세울 정도입니다.

**Q. 업무 중 힘들 때가 있다면 언제 일까요?**

안전문화 프로그램, ImTpm활동, 품질경영 활

동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업무를 늘이는 것 아니냐” “왜 현장 사정은 모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등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깨가 처지지만 그럴수록 안전신문고, 안전간담회, 안전워크샵 등 원활한 소통창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Q. 팀 내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월 ‘먹방’ 탐험을 합니다. 전원 참석 가능한 날짜와 먹고 싶은 메뉴를 사전에 조율해 일정을 정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회사 일을 뻥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감도 하고, 웃음보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힐링



도 하고 동료애도 키우는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Q. 올 한해 팀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더불어 2018년 팀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업체에 의뢰해 안전문화 수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수준’으로 나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죠. 2018년에는 안전의식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완전한 무사고’를 달성하겠습니다.



**오준 부장 이수화학 안전경영팀**

참신한 아이디어 내기를 즐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안전경영팀 여러분! 지지 않는 여러분의 도전과 성실함을 응원하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안전경영팀의 무한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늘 그랬듯 올해도 이수화학의 완전무결한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안전경영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 촬영 당시 안전경영팀 소속이었던 김홍규 차장과 최현우 대리는 2018.01.01 자로 안전환경1팀으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 스페인 명소 ‘벙커’ 사연\_ 강아름 사원(이수페타시스 영업1팀)

지난 연말에 20대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2월 31일에는 스페인의 명소 ‘벙커(Bunker del Carmel)’에 있었지요. 벙커는 바르셀로나와 지중해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꿈만 같았던 여행을 곱씹어보았습니다. 가우디의 천재성에 감탄했던 구엘공원과 까사바뜨요, 1833년부터 2026년(가우디 사후 100주년) 완공을 목표로 아직 건축 중인 성가족 성당, 해변과 노천음악이 어우러진 영화 같은 마을 시체스 등. 그렇게 감동의 여운을 음미하던 중 일이 있어 먼저 여정을 마무리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멋진 곳에 친구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죠. 추억을 더 소중한게 만들어주는 내 옆의 가족, 친구, 동료 등... 그들이 있기에 내 삶이 더욱 행복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2018년에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 아기천사 김우준 사연\_ 김주연 사원(이수앱지스 공정개발팀)

이 아기는 저를 엄마로 만들어 준 김우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엄마 뱃속에서 40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시간의 진통과 난산으로 수술을 하게 돼, 첫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와 준 우준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열 달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가 세상에 나오고, 제가 엄마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걱정이긴 하네요.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우리 우준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게 돼버린 우리 우준이에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엄마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hee895 / 이메일 : jhk653@isu.co.kr

## 이수인에게 권하는 김상범 회장의 '좋은 책'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 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링컨의 명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좋은 책'을 권하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는 책,  
꿈에 시동을 걸어주는 책,  
2018년은 책이 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코너 추천도서는 향후 이수그룹 러닝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존에서 쾌락으로 이어진 음식의 연대기

## 역사학자 정기문의 식사

| 저 자 | 정기문

| 출판사 | 책과함께

### 저자 소개

저자 정기문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로마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이끈 주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의식을 늘 품고 있다. 청년 시절에는 역사의 진정한 동력이 농업 생산이라고 생각하여 토지 제도, 세금 징수 방식, 작물의 종류와 생산 방식 등 농업에 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생산된 작물을 요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세계사를 어떻게 좌우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꼈다. 박사 과정 때 음식의 의미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그려낸 브로델의 명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읽고, 그와 같이 빵, 밥, 차, 커피, 포도주 같은 주요 음식을 통해서 세계사를 깊이 있게 설명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그때와 달리, 20세기 말 이후 음식사는 전문 연구 분야가 되었고 음식에 대한 연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식으로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책은 그 오랜 열망의 결과물이다.

### '국방'은 왜 사그라들었나

두어 해 전, '국방'과 '먹방' 바람이 불었다. 관련 프로그램들이 붓물 터지듯 생겨나고 요리사들은 스타가 되었다. 화려하면서도 치열한 요리 장면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다소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더 정갈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맛집을 찾아다닌다. 하얀 라면 열풍이 불었다가 곧 빨간 라면으로 화귀한 것처럼 사람들은 결국 다시 본질을 찾게 마련이다. 음식의 본질은 무엇일까?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연료이자 '맛'일 것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으면서 맛보기 위해 먹기도 한다. 그리고 살기 위한 식사도 웬만하면 맛있게 먹으려고 한다.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 '살기 위해 먹는다'보다는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생존보다 쾌락(맛)을 위해 먹었을까? 그리고 그 '맛'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인류의 진화와 사회·문화의 발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먹고 마시는(飮食) 일에 밀접한 게 아닐까? 저자는 서울대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시절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고, 음식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해왔다.

### ‘읽는 맛’이 다르다

음식을 소재로 한 많은 대중교양서의 저자는 주로 칼럼니스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각각에 얽힌 역사와 문화 속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를 대중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춰 잘 묶어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다소 허한 느낌이 들곤 한다. 재미있으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지적인 갈증을 풀 수 없을까? 많은 맛집 소개 TV 프로그램들 속에서 <수요미식회>가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역사학자 정기문의 식사食史>는 정통 역사학자가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 책이다. 단순히 흥밋거리 위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음식 7가지를 선정하여 그 기원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본다. 풍성한 에피소드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아 디테일한 재미가 있으면서도, 수천 년의 시간을 핵심 소재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필력과 구성력으로 묵직한 읽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는 곧 저자의 내공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펴낸 저서의 면면에서도 드러나듯이 대중과 어떻게 역사로 소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정기문 교수는, 이번 책에서 교양과 재미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냈다.

### 음식에도 ‘맥락’이 있다

책은 7가지 음식이 테마인 메인 챕터와 2개의 ‘더 들여다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챕터는 서로 크게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음식 이야기부

터 읽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목차 순서대로 읽기를 권한다. 목차의 구성 자체에 문명·역사의 발전과 연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7가지 음식이 소개되는 순서는 이렇다. 고기(육식), 빵, 포도주, 치즈, 홍차, 커피, 초콜릿. 가만 들여다보면, 앞쪽이 메인 디쉬에 올라오는 것들이고 뒤쪽이 디저트나 간식에 해당한다. 수천 년 동안 각각의 음식이 변화해온 방향이 ‘살기 위한 식사’에서 ‘맛보기 위한 식사’로였다면, 음식이 새로이 발굴되어 널리 전파되는 것도 같은 흐름을 타왔다. 초기 인류부터 섭취해온 고기를 시작으로,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래 서양인의 오랜 주식이었던 빵, 석회질이 많고 지저분한 유럽의 물 환경에서 식수로 활용되었던 포도주, 가축의 젖을 오래 보관해 먹을 수 있는 방편이었던 치즈 등은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존 요소였다. 반면 서양 중세 이후 유럽에 널리 퍼지고 세계사를 바꾼 홍차, 커피, 초콜릿 등은 삶에 풍미를 더하는 요소였다.

한편, 각 음식의 역사 사이에 공통점도 있다. 그 음식을 권력층만 향유했거나, 서민도 먹었다 해도 그 질의 차이가 현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근현대로 올수록 누구나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커피(6장)는 ‘똑똑해지는 음료’로서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혁명에 일조한 음료가 되었다. 어쩌면 문명과 역사의 발전이란 ‘입맛의 취향’이 존중되는 과정이자,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를 쟁취해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이처럼 책은 다채로우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맥락을 형성한다. 역사학자가 풍성하게 차린 이 한 끼의 정찬,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니 천천히 음미하며 즐길만하다.

OUT  
SIDE



## 고흐의 마음을 훔친 연필에서 혁신을 보다

20세기가 변화(變化)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혁신(革新)의 시대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변화라면, 예전의 제품이나 서비스 심지어 조직이나 비즈니스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렇기에 혁신이란 가죽을 벗는 아픔으로 기존의 것을 벗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넘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글 \_ 정연식(커리어앤라이프 코치)



### 혁신은 질문이다 세일즈맨이 없는 기업, 아틀라시안

아틀라시안(Atlassian)은 기업 및 정부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주는 기업으로 호주 시드니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2년 오픈한 이 기업은 세계 50여국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UN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에는 단 한 사람의 세일즈맨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새로운 거래를 탐색하기 위해 세일즈맨들로 하여금 잠재 고객들을 방문하도록 한다.

하지만 아틀라시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틀라시안은 잠재 고객들이 자사의 제품 가운데 하나의 베타버전을 스스로 다운로드해 봄으로써 관계를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고 나면,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아틀라시안의 지원부서에 전화를 걸어 질문한다. 지원부서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처럼 할인을 제시하거나 장기 계약을 종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전화한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이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엔지니어들에게 전달된다. 엔지니어들의 주 업무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해당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



지원부서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처럼 할인을 제시하거나 장기 계약을 종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전화한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이다.

하며, 고객들의 독특하고도 특이한 요구사항을 구축해준다. 이것이 아틀라시안의 모든 것이다. 혁신은 상상에서 출발한다. 많은 경우 상상은 전통에 기반하지만 전통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엉뚱한 질문의 형태를 취한다. 아틀라시안의 CEO 캐논 브룩스도 마찬가지였다. “왜 모든 기업에는 세일즈맨만 세일즈 업무를 하는 것일까?”

세일즈맨이 없는 기업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니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는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 질문으로 그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있다. 주변의 혁신 제품들을 보라. 비행기, TV, 스마트폰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제품은 엉뚱한 질문들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내 손 안에 온갖 세상을 다 넣을 수 있을까?”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작고도 세미한 내부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소 엉뚱한 질문이라도 이를 파고든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상상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혁신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상상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혁신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 혁신은 링크다 화력발전소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런던 시의회는 런던 시민과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몇 개의 대규모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하나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모태가 된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다. 템스 강변에 우뚝 솟아 있으며, 세인트 폴 대성당과 마주 보고 서 있다 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산업 대성당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석유파동과 심각한 공해문제로 1981년 운영이 중단되어 런던의 흉물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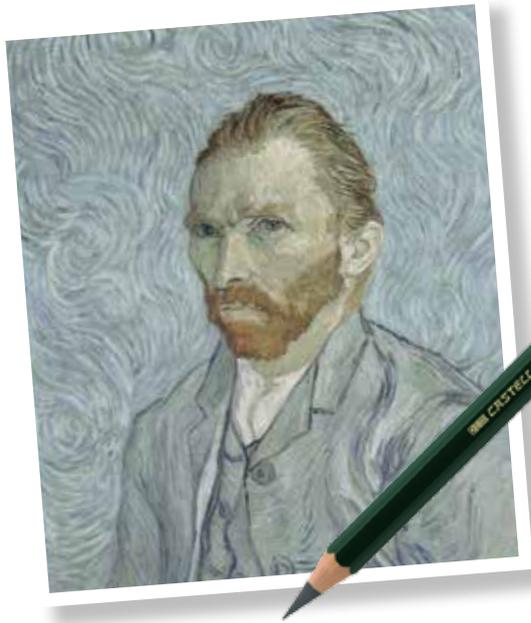
영국 정부는 이곳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공모전을 열었다. 안도 다다오와 램 콜라스 등 세계적인 건축가를 제치고 스위스의 무명의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이들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기존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모습을 최대한 살려, 발전소의 건축적 가치와 런던 역사의 상징성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발전소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99m 높이의 굴뚝, 길이 152m,

폭 24m, 높이 35m의 건물을 위해서 사용된 약 4,000만 개의 벽돌, 그리고 세로로 길게 난 창문들을 그대로 두었다. 다만 지붕에 기다란 반투명 유리 구조물을 얹어 건물 내부의 자연채광을 끌어들이며 미술관으로써의 신비로움을 더한 정도다. 물론 내부는 미술관의 기능을 위해 완전히 리모델링되었다.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링크로 발전한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우리에게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는 연결 즉 링크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두 가지 의미의 링크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산업과 예술의 연결이다. 석탄산업과 함께 세계의 산업문명을 주도했던 영국의 과거 상징이었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에 미래의 첨단 예술과 문화를 담아내어 영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과거와 미래의 링크다.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21세기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대개의 경우 혁신이라 함은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해다. 오히려 기존의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은 기존에 존재했던 본질을 미래의 고객들이 환호할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혁신은 현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자. “우리 회사의 과거의 영광은 무엇이었나?”, “우리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새로운 링크를 거는 것,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업계 표준이 된 파버의 원동력은 남다른  
생각 덕분이다. 남들은 '연필은 문자를  
적는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파버는  
'연필은 생각을 여는 창'으로 정의한다.

### 혁신은 일상이다 생각을 여는 연필회사, 파버 카스텔

고흐의 마음을 훔친 연필 한 자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보자. “이 연필은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단단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워. 목공용 연필보다 색감도 훨씬 좋지. 언젠가, 재봉사 소녀를 그릴 때 이 연필을 썼는데, 석판화 같은 느낌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 게다가 한 자루에 20센트밖에 안 해.” 빈센트 반 고흐가 친구 안톤 반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 중 한 부분이다. 고뇌에 찬 예술가 이미지가 강한 고흐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친 연필은 바로 ‘파버 카스텔(Faber-Castell)’이다.

연필심의 강도와 굵기 등에 편차가 심한 연필에 HB라는 표준을 정하고, 연필심의 경도에 따라 2H, H, HB, 4B 등의 연필도 따로 생산한 세계 최초가 바로 파버다. 또한 연필이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최초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 역시 파버다. 업계 표준이 된 파버의 원동력은 남다른 생각 덕분이다. 남들은 ‘연필은 문자를 적는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파버는 ‘연필은 생각을 여는 창’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파버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여는 연필은 필기감이 부드러운 연필이다. 글을 쓸 때 필기감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생각을 여는 연필은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연필이다. 연필심이 부러질 때

다 생각의 맥도 똑똑 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파버 카스텔은 생각을 여는 최고의 연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링크로 시작하고, 일상에서 마무리된다. 파버 카스텔은 1메가파스칼(MPa)을 1mm당 100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정의하고 HB 연필은 50g을 견딜 수 있게 제작하였다. 파버 카스텔의 50g은 생각을 여는 창이 첫 시작이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삶도 마찬가지다. 50g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내기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같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파버 카스텔처럼 우리만의 독특한 표준 숫자에 이를 수 있다. 이 표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상의 지루함에서 탄

생한다. 일상의 지루하고도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숫자로, 그 표준은 혁신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 일상을 어떤 이는 루틴(routine)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카이젠(kaizen)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든 불려도 상관 없다. 매일같이 그 시간이면 그 장소에서 어김없이 그 일을 하는 루틴이든, 매일같이 작은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카이젠이든. 핵심은 매일의 노력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자. “나는 나만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이 있는가?”, “이 루틴 속에서 나는 매일의 카이젠을 만들고 있는가?”, “매일의 카이젠에서 나는 새로운 혁신의 먹거리를 찾고 있는가?”





## 등잔 밑이 어두운 회사 앞 맛집 소개

×

## 이수화학 이정구 사보기자

추천 맛집 \_ 양촌흑미전복삼계탕(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신온8길 12-7, 052-239-9889)

ISU 사보기자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한다. 회사 근처, 우리만 알고 있던 맛집을 이수가족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 사보기자와 함께 하는 맛집 찾아 삼만리. 이번호에는 이수화학 이정구 사보기자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울산의 '꾸찌뽕삼계탕(상호:양촌흑미전복삼계탕)'을 소개한다.

### 그냥 삼계탕이 아니야~ 꾸찌뽕삼계탕이야!

꾸찌뽕삼계탕으로 유명한 '양촌흑미전복삼계탕'은 이수화학 온산공장에서 차로 10분, 울산공장에서는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다. 건물 전체가 식당이고, 간판과 현수막이 눈에 띄어 찾는데 어려움은 없다. 또 식사시간 때면 그곳을 드나드는 인적이 많아 한 번쯤 눈이 가는 곳이다. 사보팀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점심시간이 지나서 맛집을 찾았다. 적당한 자리를 잡고 내부를 둘러보니 '꾸찌뽕'에 관한 설명과 특허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보팀이라고 손수 음식을 내온 주방장에게 꾸찌뽕삼계탕만의 비법을 물었다.

"저희 삼계탕의 핵심은 꾸찌뽕 진액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진액은 부모님께서 직접 농장에서 수확하신 꾸찌뽕을 뿌리, 열매, 잎, 줄기 할 것 없이 모두 넣어 10시간 이상 푹 달여낸 것입니다."

추천 이유 한마디!



"삼계탕 전문점인 이곳은 '꾸찌뽕삼계탕'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저 역시 다른 분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한번 맛보고 하니 단골이 되었습니다. 꾸찌뽕삼계탕은 닭보다도 꾸찌뽕 진액을 사용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꾸찌뽕 때문인지 먹고 나면 웬지 모르게 기운이 난답니다. 여러분들도 꾸찌뽕삼계탕 한 그릇 씩 드시고 2018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들도 꾸지뽕 진액에 담가 하루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인삼, 대추, 은행, 마늘, 전복, 부추 등 몸에 좋은 부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죠!” 꾸준한 인상처럼 음식에는 정성과 인심이 담겨야 한다는 주방장의 철학이 꾸지뽕삼계탕에 대한 기대를 더한다.

예로부터 꾸지뽕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해 ‘천목’이라 불렸다고 한다. 잎, 뿌리, 줄기, 열매,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약재로 성인병 예방에 좋고 혈액을 맑게 해 동맥경화 예방, 만성 염증 완화, 혈압과 혈당 강하, 피로회복, 피부미용 등 그 유익함도 방대하다.

#### 국물이 끝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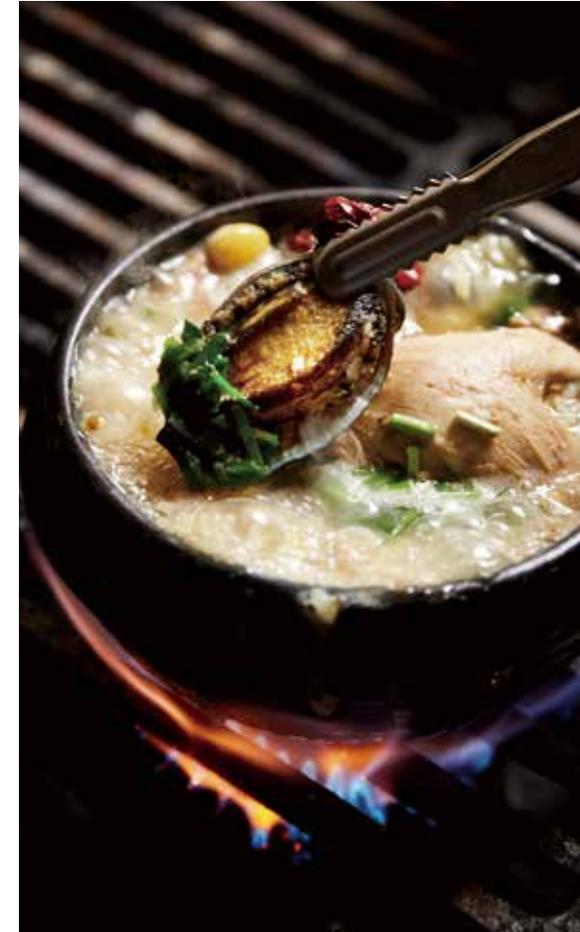
어마어마한 꾸지뽕의 효능을 듣고 나니 꾸지뽕삼계탕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우선 보



지금까지 삼계탕은 몸이 허할 때 한 번씩 의무적으로 먹어주는 그냥 일반적인 보양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맛 본 꾸지뽕삼계탕은 보양식을 넘어 그 독특한 맛이 뇌리를 맴돈다.

글보글 끓는 뚝배기 위로 오감을 집중해 향을 맡아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재 향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향만 맡았을 뿐인데 벌써 건강해진 이 느낌은 무엇일까?

찰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100% 꾸지뽕 진액인 국물을 호로록 입에 넣어 본다. 역시... 기대치를 꼭 채워 준 맛에 고마운 마음이 울컥 든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차례. 수조에서 확보하던 싱싱한 전복과 통통히 살이 오른 닭을 뜯을 시간이다. 푹 고아 내 부드러워진 살은 몇 번의 저작 활동으로 흔적을 감춘다. 꾸지뽕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인지 닭살은 결마다 꾸지뽕의 향이 깊게 배어 있다. 전복, 인삼, 은행, 대추 등 부재료를 다 건져 먹고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낼 쯤 상에 올려진 반찬들이 눈에 든다. 두툼하게 썰은 빨간 깍두기, 생채무침, 양파 장아찌와 닭똥집 볶음이 서운한 듯 쳐다본다. 예의상 깍두기를 입에 넣으니 삼계탕과 곁들이지 않은 후회가 밀려온다. 고소하게 볶아낸 닭똥집은 젓가락에 꺾을 붙여 냈는지 자동으로 손이 간다. 만찬을 마치고 후식으로 준비된 꾸지뽕차를 종이컵에 담아 들었다. 호~ 불어 한 모금 넘기니 자일리톨껌 저리 가라 한다. 역시 1도 버릴 것이 없다는 꾸지뽕의 위상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삼계탕은 몸이 허할 때 한 번씩 의무적으로 먹어주는 그냥 일반적인 보양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맛 본 꾸지뽕삼계탕은 보양식을 넘어 그 독특한 맛이 뇌리를 맴돈다. 맛과 건강을 제대로 잡은 꾸지뽕삼계탕. 그야말로 한 해를 힘차게 보낼 '맛있는 보양식'이 틀림없다.

## 해 뜨는 바닷가에서 부르는 무술년 희망의 노래

무술년의 새아침이 열렸다.

지는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 희망이 넘실대는  
파도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언제 보아도 가슴 뭉클한  
풍경이다. 바로 그 가슴 뛰는 감동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에서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동해 심해선 밖의 외로운 섬 울릉도, 새해 첫 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간절곶 그리고  
범의 꼬리 호미곶까지. 뜨거운 가슴에 희망을 가득  
불어넣어 줄 무술년 첫 번째 해돋이 여행의 추억은 아름다운  
꿈으로 남겨질 것이다.

글 / 사진\_ 이마로(여행작가), 울릉군청, 울산광역시청, 포항시청

## 동해 심해선 밖의 섬에서 한반도의 새벽을 열다 울릉도

쾌속선이 운항하기 전, 울릉도는 10시간 넘게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야 닿을 수 있던 동해 심해선 밖의 섬이었다. 그렇게 고행이나 다름없는 뱃길 끝자락에 닿았던 섬이기에 울릉도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 일출은 더욱 뜻 깊은 추억이었으리라. 이제 불과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섬이 되었지만 울릉도의 해맞이는 여전히 남다른 느낌이다. 시시때때로 일본이 넘보

는 독도의 어미섬이 울릉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울릉도의 일출 명소로 꼽히는 곳은 독도일출전망대, 내수전일출전망대, 석포일출전망대 세 곳이다.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은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오르는 독도일출전망대.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발밑으로 도동항 일대 풍경이 펼쳐지고 멀리 독도 방향에서 떠오르는 황금빛 태양이 가슴을 두방망이질 한다. 맑은 날에는 독도까지 시야에 담을 수 있다.

또 하나 찾아가기 쉬운 울릉도의 일출명소는 저

동항 촛대바위 앞이다. 뽕족하게 솟아오른 촛대바위는 사진가들이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 찾는 해돋이 명소. 촛대바위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줄지어 늘어진 저동항 방파제 한가운데 있다.

- ① 경북 포항, 동해시 묵호, 강릉 안목항에 울릉도 가는 배편이 있다
- ① 여객선 이용료(편도) 어른 5만4천원~7만7백원
- ① 묵호·안목여객터미널: 씨스포빌리조트 1577-8665  
www.seaspovill.co.kr
- ① 포항여객터미널: 대저해운 1899-8114 www.daezer.com, 태성해운 1688-9565

### 국토의 막내 독도

울릉도 여행을 떠나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역시 독도일 것이다.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 온통 바위투성이인 이 작은 섬은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 등 희귀 조류들이 터를 잡아 살아가고 있는 천연기념물(제336호)이다. 또한 주변에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등 기묘한 형태의 섬들을 거느리고 있어 볼거리가 많다.

● 독도로 가는 배는 울릉도 저동항과 사동항에서 출항한다.

● 돌핀해운(054-791-8112), 씨스포빌(1577-8665), 대저해운(1899-8114)

※소요시간은 왕복 약 4시간. 기상상황에 따라 배가 뜨지 못하는 날도 있다.

##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고래의 고향 울산 간절곶

간절곶은 울릉도에 비해 일출시간이 조금 느리지만 찾아가기는 훨씬 수월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찾는 곳이다. 간절곶이 자리 잡은 서생면 사람들은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을 하고는 한다. 흔히 포항 호미곶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울산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장소.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의 표지석

동해 끝자락의 외로운 섬 울릉도에 여명이 밝아온다

조금 더 정확히 따지자면 울산 간절곶이 호미곶보다 1분 빠르고 정동진보다는 약 8분 일찍 해가 뜬다.

간절곶 앞바다는 동해를 거쳐 이동하는 고래들의 경유지로 잘 알려져 있다. 간절곶 일출은 신비의 포유류 고래만큼이나 놀라운 풍경. 간절곶에는 모녀상과 새천년 기념비 등의 각종 조형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체통인 '간절곶 소망우체통' 같은 독특한 볼거리도 있다. 특히 간절곶 소망우체통은 이곳에 들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증샷을 남기고 가는 울산의 대표 명물. 1920년 불을 밝힌 간절곶 등대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볼거리다. 지난 2001년 현대식 등대가 완공되기 전까지 80여 년 동안 울산 앞바다의 고깃배

들에게 바닷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 ①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4(간절곶 주차장)
- ① 052-229-3852(울산광역시청 관광과) ganjeolgot.ulsan.go.kr

**덜 알려진 일출 명소 명선도**

간절곶에서 불과 4km 거리에는 진해해변과 명선도라는 덜 알려진 일출명소가 하나 있다. 진해해수욕장의 일출이 아름다운 까닭은 바로 앞에 떠있는 섬 명선도 때문. 명선도를 배경으로 태양이 떠오를 무렵 고깃배가 갈매기 떼를 이끌고 귀항하는 모습은 심금을 울리는 절경. 이곳 역시 사람이 몰리기는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어 비교적 여유롭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07-2
- 052-229-7643(울주군청 문화관광과)



간절곶은 포항 호미곶보다 1분 빨리 해가 뜬다



상생의 손은 호미곶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일출 감상 포인트



호미곶을 찾아가는 929번 지방도는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범의 꼬리에서 맞이하는 상서로운 기운 포항 호미곶**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풍수가인 격암 남사고 선생은 호미곶을 가리켜 '호랑이의 꼬리'라고 말했다. 호랑이의 꼬에 해당하는 장소가 백두산,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포항 호미곶이라는 것. 이처럼 상서로운 장소이기 때문일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호미곶에 쇠말뚝을 박기도 했다고 한다. 호미곶해맞이광장에 들어서면 '상생의 손'이라 불리는 조형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두 개의 거대한 손이 해맞이공원 한복판에 하나, 그리고 공원 바로 앞바다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마치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를 떠받드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포항12경 중 제 1경으로 지정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일대는 과거 장기곶으로 불리다가 지난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행사를 치르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뜻하는 호미곶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파도가 몰아치는 호미곶 앞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 보아도 장엄하고 감동적인 장면이다. 매년 1월 1일 해맞이축제도 개최된다.

- 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
- ① 054-270-5837(포항시 관광안내소)



**국립등대박물관**

해맞이광장 안에 위치하는 국립등대박물관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라져가는 항로표지 시설과 장비를 전시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해온 바다와 등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이 박물관은 본래 지난 1985년 장기곶 등대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기획전시관, 수상전시장, 야외전시장, 테마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
- 054-284-4857 www.lighthouse-museum.or.kr

2

책상 한쪽 녹색식물은  
심신 건강에 좋다

1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3

당장 써야 하는 물품만  
책상 위에 놓는다

4

파일은 서류함에 담아  
서랍에 보관하라

5

메모는  
한 곳에 부착하라

## 업무 효율 높이는 책상 정리의 기술

2018년 더 스마트한 오피스 라이프를 위해 <SU>가 전문가와 함께 정리 노하우를 전한다. 업무력을 높이는 정돈된 책상은 당신을 능력자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 책상 정리 key point

### 1. 모두 모두 꺼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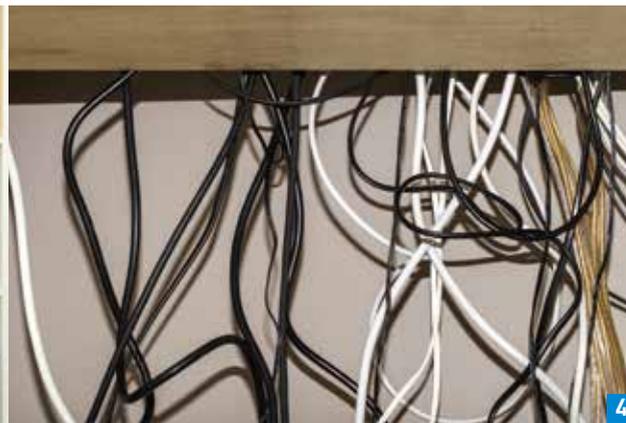
팔 걷어 붙이셨나요? 지금부터 책상 위와 책상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물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나와서 많이 당황할 수 있어요.

### 2. 서랍 속 물건을 분류해요

이제 이 물품들을 분류할 거예요. 크게는 자주 쓰는 사무용품, 서류 및 파일, 개인용품으로 나눌게요. 자주 쓰는 사무용품을 넣을 서랍은 공간박스나 작은 수납함 같은 걸로 물품 종류에 따라 칸을 나눠요. 그럼 포스트잇이나 볼펜, 가위, 스키타이프가 서로 엉켜 복잡해지지 않아요. 서류와 파일은 즉시 처리할 것, 위임할 것, 보관할 것, 버릴 것으로 분류해요. 즉시 처리할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 다른 부서나 다른 이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위임할 것, 자주 꺼내 보는 업무용 자료는 보관할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도록 해요. 칫솔, 거울, 화장품, 보조 배터리 등 개인용품은 서랍 한 곳에 보관해요. 책상 위 이곳저곳에 놓아두면 미관상 좋지 않아요.

### 3. 메모는 메모보드 한곳에 모아요

업무 중 메모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되는 메모들도 정리가 필요해요. 특히 정해진 곳 없이 여기저기 하는 메모는 정착 필요할 때 찾지 못해 애를 먹곤 하죠. 직장에서는 포스트잇에 메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모니터 옆에 메모보드를 만들어 메모지를 순서대로 붙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완료된 메모는 하나씩 떼어내면 되요.



### ▶▶▶ 이지는 정리컨설턴트의 PLUS TIP

#### ① 명함, 정리 후 버리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건네받게 되는 명함. 꼭 필요한 물품이긴 하지만 인사를 나눈 뒤에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신세가 된다. 명함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파일링 하기가 어렵다면 명함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고 명함 자체는 버리도록 한다.



#### ② 나만의 휴지통은 필수

정리의 첫걸음은 '버리기'라고 했다. 버리기 역시 바로 바로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지저분함을 만들게 된다. 책상 아래 나만의 휴지통을 만들어 버릴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좋다.



#### ③ 출근 즉시, 세균 퇴치

회사에서 가장 많이 손이 닿는 키보드와 마우스, 전화기.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항균티슈 등으로 이곳의 먼지와 세균을 닦아내도록 하자. 출근 후 단 3초만 투자하면 깔끔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4. 전선 정리도 꼭 필요해요

책상 위, 그리고 서랍까지 모두 정리했는데도 뭔가 허전하다면 그건 바로 전선 정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 프린트, 전화기, 충전기 등 많은 전선들이 나와 있어요. 검고 굵직한 선이 책상 위를 횡단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죠. 우선 기기의 전원을 모두 끈 다음 한번 연결하면 거의 뺄 일이 없는 주요 선을 기준으로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해 보세요. 선 정리클립이나 케이블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요.

### 5. 퇴근 5분 전, 정리 시간 가져요

매일 퇴근 5분 전에는, 다음 날 쾌적한 책상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책상 위 물건들을 제 자리에 놓아두고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 파일 등을 정리해요. 퇴근 후 내가 없는 빈 책상을 상사나 동료들이 봤을 때 어떤 책상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지 생각해봐요.



## 소리로 먹고, 소리로 소비하라 소닉브랜딩

포장지를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입 베어 무는 순간 터지는 '바삭'거리는 소리만으로 화면을 짝 채운 과자 광고가 화제를 모았다. 패러디까지 생겨났다. 이처럼 소리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마케팅 방식을 '소닉 브랜딩(sonic branding)'이라 부른다. 강렬한 배경음악이나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제품의 특징점을 강조하는 대신 단순하게 제품 자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소리계의 3D'라 불리는 ASMR 기법을 적용해 소리가 더 생생해지는 추세이다.

글\_ 이덕우(칼럼니스트)

### 딱, 바삭, 꿀꺽! 소리로 기업을 말하는 시대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제품을 쉽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뚜껑 열리는 '딱' 소리나 포장지의 '바스락' 소리, '사각사각' 글자 쓰는 소리 등 소비자가 내는 작은 소리는 제품의 신선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안전성이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대중음악평론가 성기완은 그의 저서 <소리에술과 매체미학(2013)>에서 "소리는 실체는 없지만 어디선가 듣는 이에게로 다가와 마음의 물결에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며 소리의 힘을 설명했다.

물론, 소리는 시각에 비해 전달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반복적 노출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 정보는 이미지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교적 오랫동안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청각의 잔상효과(殘像效果)'라고 한다.

청량음료 제조사인 닥터페퍼의 스내플이라는 청량음료는 병뚜껑을 돌려 딸 때 나는 특유의 '딱' 소리가 이 회사 제품의 신선함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되었다. 이처럼 미세한 소리가 브랜드 선택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광고에서도 제품이 내는 다양한 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소리를 기업의 슬로건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식품 제조사인 켈로그에서는 "딱, 바삭, 꿀꺽"이라는 의성어를 광고 슬로건으로 사용해 상당한 광고효과를 얻기도 했다. 소리로 기업을 드러내는 시대가 온 것이다.



### 청각을 활용한 감성마케팅, 소닉 브랜딩

이처럼 전통적으로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청각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품 자체가 내는 소리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리가 브랜드 전략의 최전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을 소닉 브랜딩(Sonic Branding)이라 부른다. 인간의 오감 중 특히 청각을 활용한 감성마케팅으로 소리나 음악 등 청각적 요소를 이용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징글(Jingle) 마케팅이나 CM송(Commercial Message song)도 소닉 브랜딩에 포함된다. 징글이란 특정 브랜드를 상징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근당의 종소리 같은 것이다. 종근당은 1961년부터 모든 제품 광고의 마지막에 종소리 효과를 넣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광고의 마무리하는 항상 종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만 들으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떠올리게 된다.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연상효과가 뛰어나 징글은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제품명이나 브랜드에 멜로디를 넣어 징글마케팅 효과를 꾀하기도 하는데 '생각대로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읽을 때도 멜로디를 붙이게 된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나 '간 때문이야'라는 CM송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거나, 초코파이와 우루사 같은 제품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ASMR과 소닉 브랜딩의 시너지, 광고로 치유받 아볼까

징글이나 CM송 등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소리'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 중에는 소리만 극대화한 광고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리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ASMR과 접목하면서 소리 자체가 광고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광고로도 치유 받는 세상이 올까.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 감각 쾌락반응)을 기반으로 한 3D 음향기법 광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ASMR은 오감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 따위의 감각적 경험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없지만 세계적으로도 '힐링 사운드'로 알려져 있다.

광고계에서도 ASMR에 관심을 갖고 그 개념을 차용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극도로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 선명하게 들려주는 3D 음향기법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리츠 크래커 광고를 꼽을 수 있다. 별도의 배경음악 없이 봉지를 뜯는 소리, 크래커가 바삭하게 나누는 소리, 모델이 바삭함을 음미하며 먹는 소리 등 제품과 연관된 소리에 집중하며 제품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한다. 이 광고는 유튜브 조회 수만도 700만 건을 훌쩍 넘었고 패러디 광고조차 100만 건을 넘었을 정도로 대단한 화제가 되었다. 화장품 바르는 소리만 극대화한 광고, 라면을 요리하고 시식하는 소리만 극대화한 광고 등도 비슷한 사례이다.

광고에서 ASMR 기법은 소리의 미세한 감정까지 잡아낼 정도로 진화 중이다. 이대로라면 광고로 치유 받는 세상도 머지않은 듯하다. 두부 자르는 소리를 극대화한 광고를 통해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을 찾는다가거나 식용유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통해 잔칫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광고도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 귀담아 듣는 독자 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유 및 가족들의 많은 엽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 인간관계, 자기계발 등 이미 같은 경험으로 고민해 보신 선배님들의 조언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커뮤니케이션 Talk'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정세미 사원(주)이수 기획팀



### 아련한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리브 culture'에 실린 아날로그에 대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편리로 따지자면 디지털이지만 나름의 불편함이 추억과 애뜻함, 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필름카메라를 꺼내고 다시 펜을 잡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대리(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 사회공헌활동 파란책방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이수그룹의 이슈를 전하는 '이슈를 잡아라'에 소개된 파란책방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직원들이 기부한 책을 동료들끼리 공유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뜻 깊은 책방이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이용과 기부로 좋은 활동에 자주 참여하겠습니다.

안혜지 대리(이수페타시스 영업1팀)



### 나의 품격을 지배하는 말 한마디의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리포트'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말투와 몸짓을 쓰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공감 가득한 말투로 저도 여러 관계 속에서 좋은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유승 대리(이수시스템 인프라사업팀)

신년호 Mini Quiz

다른 그림 찾기

1번과 2번 사진의 다른 그림 5개를 찾아주세요.



1.



2.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년 가을호 당첨자

- 정세미 사원(주)이수 기획팀
- 안혜지 대리(이수페타시스 영업1팀)
- 김영관 대리(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 오유승 대리(이수시스템 인프라사업팀)



\* 가을호 <꽃보다붕어빵>에 출연한 가족 중 이수가족이 뽑은 가장 많은표는 3번 '김현중 차장+자녀 김지호' 가족이었습니다.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불호 원고 마감은 3월 20일입니다. 문의 \_ (주)이수 브랜드관리팀 (02)590-6895

